

기념일, 〈구운흙 위에 혼합재료채색〉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대학원에서 미술학, 조각연구 석사를 졸업함.
충남과 대전을 연고로 대학교부터 각종 국내그룹전과 공모전시 출품, 충남미술대전에서 조각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전국조각가협회원전 특별상 수상, 충남청년작가전, 충남교원미전 1, 2등 여러 차례 수상함.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사무국장, 조각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도솔미술대전 운영간사 및 심사위원 등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로서 지금까지 개인전 3회와 국내 초대전 및 단체전 등 140여회 출품 전시하고 있음.
현재 북일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조형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1 백석그린빌 202동 1003호
- 연락처 : 010-5421-2887
- 이메일 : wanni1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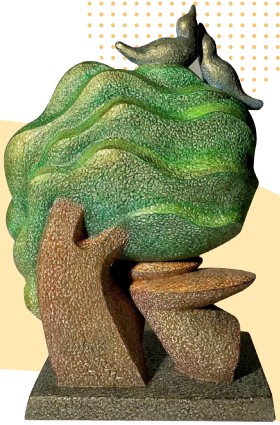


기원, 〈구운흙 위에 혼합재료채색〉

제4회

나요환 조각전

'내면의 形像
|
오며 가며 쉬다'



충청남도교육청 갤러리 「이음」

2021. 5. 17.|월| -7. 09 |금|

제4회
나요환 조각전

'내면의 形像 – 오며 가며 쉬다'



길조,
〈구운흙 위에 혼합재료채색〉



구원,
〈구운흙 위에 혼합재료채색〉

2021년 5월 17일~7월 9일. 충청남도교육청 갤러리〈이음〉.
이번 네 번째 조각 전시를 하는 나요환 작가는 20여 년간 천안에 위치하는 북일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미술을 탐미하는 미술 교사이면서 매일 같이 시 공간이 주어지거나 휴일, 주말을 이용해 자신만의 내면적 자유를 조형물로 꾸며내는 작가이기도 하다.
한 작품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다. 전업 작가도 아니고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에 영감을 잡아 아이디어 스케치를 시작으로 찰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표면 질감에 채색이 잘 되도록 수천 점의 점을 찍고, 작품이 깨지지 않게 속을 파내고, 그대로 그늘에 말려서 전기가마에 1,100도 온도에 이틀 동안 굽고 식히는 시간을 보내고, 그 형상 위에 유성 색연필(안료)과 흑연 염료로 채색하여 픽사티브로 정착시키고, 마지막엔 표면을 바니쉬로 여러번 코팅하여 완성하는 작품들을 한다. 그래도 1년에 4~6점 작품을 제작한다고 하니 하루도 쉴 수가 없을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다. 작가는 그 긴 제작 시간들을 명상으로 승화하고 그 시간만큼 삶을 돌아보며 자신만의 여유를 찾는 시간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보통 조각하면 거칠고 웅장한 크기의 형상을 생각하지만 섬세한 터치와 다양한 색채를 담고 있는 회화적 이미지를 조각에 담고자 노력하는 작가이다. 크고도 거친 형상을 만들기 보다 작고 아담한 크기(30~50cm)로 소조 형상이 대부분이고,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이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한복을 입고 기원하는 여인과 평화와 축복을 기원하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꽃들을 반구상적이고 부조화된 이미지를 혼합하여 현대적 예술품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작품 앞면과 뒷면을 다르게 하면서도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형상을 찾아 작가적 내면적 형상을 표현하려 노력한다고 한다.
작가는 7, 80년대 농촌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산과 들에서 뛰놀면서 느낀 감성을 늘 가슴에 자연의 향수로 담고 살았으며 평생토록 종교적 믿음으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늘 감사하는 생활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왠지 작품을 보는 이에게도 조용한 울림이 느껴지는 형상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한다.
작가는 말한다. 바쁜 일상 속에 오며 가며 작품과 대화를 하며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 숨 쉬는 바램의 형상을 찾는 기회를 가지라고 한다. '명상(冥想)에서 바램 형상(形像) 찾기'는 또 다른 쉼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작품으로 말하고 있다.

2021. 05 나를 보며 쓰다. 나요환





봄이 오는 소리,
〈구운흙 위에 혼합재료채색〉





가족 사랑, 〈구운흙 위에 혼합재료채색〉